

# 사내통신망 새 실행공간 '뿌리'

## 한전 반야회 등 게시판·홈페이지 운영 불교소식·경전·수행기 올려 신심 키워

한국 전력 본사에 근무하는 이순형(52·원자력건설처 부장)씨는 아침 출근과 함께 컴퓨터를 켜고 빠른 연결로 설정해 놓은 사내통신망 불교동호회인 반야회를 클릭한다. 전국에 흩어진 반야회원들이 오를 수 있는 어떤 글을 올렸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중 발견한 부처님 말씀을 게시판에 올리기를 위해서다.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한범수(52·대공원역무관리소 소장)씨도 하루에 몇 번씩 사내통신망 불교동호회 게시판에 찾는다. 법우회에 대한 최근 소식도 알고 싶고 며칠전에 올린 서산대사의 선시를 몇 명이나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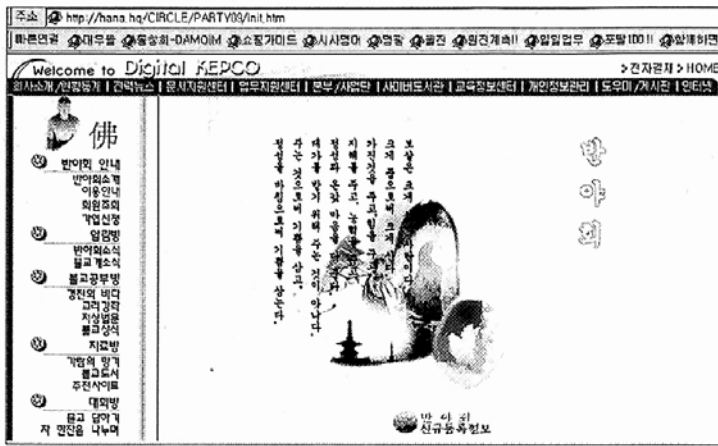
최근 바쁜 업무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 불자들에게 사내통신망 동호회나 인터넷홈페이지가 새로운 실행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동호회를 통해 불자들이 모여 직장내 불자회를 만든다는 등 off-line상의 법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전력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지난 98년 3월 사내통신망 파워넷에 동호회 등록을 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력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의사소통공간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본사에 근무하는 몇몇 불자들이 반야회를 알리기 위해 사내

통신망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으나 지금은 전국 300여명의 전력인 불자들이 반야회 소식을 물론 불교를 알기 위해 매일 이곳을 방문한다. 사내통신망 반야회는 법화안내 알림방, 불교공부방, 자료방, 대화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파워넷에 등록된 15개 동호회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홍기성 한전 본사 반야회 총무는 "동호회에 동참하는 불자들이 연합회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해 올해 초과일날 한전 본사, 인천화력, 한일병원, 영광원지력 등 14개 지역 한전 반야회로 구성된 전국전력인불자연합회를 결성했다"며 "지금도 보령화력, 부산전력, 경태화력 등 6개 지역 반야회가 창립이 동호회 게시판에서 논의되고 있어 사내통신망이 직장내 불자회 창립 및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 내 불자들은 98년 가을 사내통신망에 법우회라는 불교동호회를 만들고 게시판을 통해 반야회, 금강경 해설 등 경전이야기부터 개인적인 신앙기까지 올리기를 시작했다. 자신들이 불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자회를 사칭하고 97년에는 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만)를 정식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게시판은 지금도 불자뿐만 아니라 6천 도시철



도공사 직원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회장 이영취)도 회원들이 바쁜 업무로 시간을 내기 힘들어 정기법회를 대신해 올 3월 게시판을 개설하고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사내통신망 동호회를 등록했다. 게시판에는 공자사상, 수행기, 신행담, 짧지만 일상을 되돌아볼 수 있는 법담 등이 올려져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또한 봉은사에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강경두)도 인터넷에 홈페이지(www.seonjae.com)를 개설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 등이

직장직능 불자회들이 사내통신망을 통해 직장내 불교를 알리고 있고 한국세무사불자회 등 다수 불자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회원상호간의 친목은 물론 부처님 말씀을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 총무 강인준씨는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직장인들은 업무시간에 쉴 틈이 없기 때문에 법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내통신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불자회 소식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이버 법당으로 앞으로 다른 직장직능 불자회에서도 적극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김윤하  
(수원중앙회 연수원 교수)

지난 6월 초 점심은 먹고는 회사 근처의 아우내 장터(충남 천안) 구경을 갔었다. 아우내는 시골이라 5일장이 열린다. 이런 저런 시장 구경을 하다 어느 가게 진열장에 놓인 수박묘종을 발견했다. 어렸을 적 텃밭에 채소심던 생각이 나서 3천원을 주고 수박이랑 토마토 묘종을 사와서 숙소앞 정월 구석에 심었다. 동료직원들과 함께 삼으로 구덩이를 파고 퇴비비료를 넣고 물도 뿌려주었다. 한야를 되는 수박 덩어리랑 주먹만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릴 모습을 상상하면서, 비가 며칠 안오면 새벽에 일어나 물도 주고, 토마토 줄기에는 지주대도 세웠다. 그런데 얼마간은 잘 자라다가 싶더니 비가 오니 꽃피고 손톱만큼 달렸던 수박줄기가 녹아 없어져 버렸다. 또한 토마토도 더이상 자라지 않고 열매가 겨우 한개 더 커졌고 달리고는 끝이

었다. 다른 동료가 그 땅에 그렇게 해서 농사가 되겠냐고 할 때 퇴비도 많이 넣고 물도 수시로 주면 금년 여름에는 수박이랑

말한다'는 인연법을 수박과 토마토 묘종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부처님 말씀이 수박과 토마토 줄기에 있었던 것을 모르고 그렇게도 부실히 특별한 데서 찾았던 것이다.

불법을 전함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나 자신부터 청정하게 하면, 그 가족은 자연스레 불자가 되고, 그 가족이 부처님 법대로 여려하게 생활할 때 주위 사람들이



에게 불법의 향기가 자연스레 퍼진다. 부처님이 성도 이후 처음으로 5 비구를 교화할 때 설법한 내용이 사실 이와 다르

## "상사·동료 부처로 보자"

토마토 파티를 멋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누군가가 잘 크느냐고 물을 때는 대답도 못하고 화제를 돌리곤 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의욕만 앞섰던 것이다.

나는 직장내 불자회를 만들고 법회를 보는 것 또한 지금까지 이런 지혜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서 특독했다. 불자회를 한다고 나서고 있는 나 자신이 부처님 진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불교를 가르쳐 준다고 초심자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심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의욕만 앞세워 퇴비 조금 넣고는 비료도 뿌려주지 않고 물이나 주고있지 않거나 되돌아 보게된다. 물을 주니 땅은 더 굳어지고, 비가 오고 날이 뜨거우니 식물인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지금의 불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위안을 삼는다.

불법이 다른 데 있지 않다. 법심 불은 우주에 충만하다고 늘상 들었지만 그동안 마음에 탁 와 닿지는 않았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지 않다. 나 자신이 청정하려면 참회하고 정진해야 한다. 신·구·의 삼업이 많이되고, 탐·진·치 삼독심이 없어지면 청정해지는 것이다. 불법을 바로 알고 청정한 삶을 살자. 목련은 화살이라고 불내지만 향기가 없어 벌과 나비들이 찾아 들지 않으며, 피고 난 후에 떨어진 꽃잎모습들을 보면 언제 화사했나 싶을 정도로 추하다. 불내 한편에 보잘것없이 피어있는 들꽃은 은은한 향기를 내어 그 향기 좇아 벌과 나비들이 찾아 들고 꽃이 지면 씨를 맺고, 떨어진 꽃잎은 흔적도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다.

불법을 멀리하는 게 아니다. 은 우주법계가 다 법심불로 충만해 있다. 작은 풀 하나, 굴러가는 돌맹이에도 부처님 말씀이 스며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는 물론 동료들까지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다.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의 말씀일수 있고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나에게 모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 부처님들이 모여있는 직장, 그곳에서의 생활은 활기찰 것이다.

## "세무상담·인도 성지순례 추진"

세무사불자회 새 회장 정구정씨



"그동안 고충이 없지는 않았지만 회원들의 맑은 성원과 동참으로 불자회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무사불자회가 회원들의 수행과 친목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창립당시의 초발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8월 25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한국세무사불자회 정기총회에서 제 3대 회장으로 선임된 정구정(47)씨는 "법회장은 선임된 정구정(47)씨는 '법회 임원들이 모여 10월 1일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는 의료봉사에 대한 세무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

회에 나오면 일거가 있는 것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며 "출수달은 큰스님법문, 짝수달은 성지순례로 월례법회를 병행하고 법회시 회원 상호간의 세무정보공유는 물론 세정당국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해 친목과 신심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정회장이 이렇게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96년 불자회 창립위원장으로 세무사 불자회 창립을 주도했고 지금까지 매달 정기법회에 빠짐없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애경사에 적극 동참하고 연말에는 인도 8대성지 순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세무사불자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일반시민은 물론 불자기업인들에게 무료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자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료세무상담을 통해 부처님 말씀도 널리 알리고 불자들에게 자신이 불자임을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김두식 기자

## 경기도청불자회 정기법회

경기도청 불자회(회장 이근홍)는 14일 오후 7시 수원 봉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스님이 설법할 예정이다. (031)249-2001 이근홍

## 병원불자련 봉사준비모임

전국병원불자련연합회(회장 김주호)는 15일 롯데월드 민속관에서 의료봉사 준비모임을 가진다. 이날 모임에는 국립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서울시내 5개 병원 불자회 임원들이 모여 10월 1일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는 의료봉사에 대한 세무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

## 우리 모임에선

다. (02)958-8113 권혁은

## 춘천정신병원 불자회 창립

불자외사와 간호사, 일반 종사자로 구성된 국립춘천정신병원 불자회가 16일 오후 2시 병원 강당에서 창립기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정혜사 회주 현문 스님이 법문할 이날 창립 법회에는 장동원 병원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인사, 전국병원불자련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033)260-3301 이동수

## 철도청불교협 임원연수

철도청불교협의회(이하 철불협

회장 박창식)는 9월 23-24일 김천 직지사서 임원연수를 가진다. 철불협은 이번 임원연수에서 전국철도청불자연합회 창립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불협은 현재 구로, 성북구세무사, 수석, 용산, 부산, 대전, 제천, 영주, 광주, 청양리 기관차세무사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016-352-8320 박창식

## MBC불교연 실상사 순례

MBC불교연구회(회장 장영호)는 21일 여의도불교회관에서 대각사 부주지 언일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23일에는 실상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89-2216 장영호

## 클릭! 새 홈 페이지

- 내 번뇌의 끝은 어디로? (http://cafe.daum.net/chulga)-9월 6일 개설. 한 번이라도 출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 이들의 번뇌 나뭇터.
- 천수 (http://cafe.daum.net/chunsoo)-8월 30일 개설. '선과 종교수행'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의견 나눔의 장.
- 부처님사랑 (http://cafe.daum.net/BSOL)-9월 4일 개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여 하는 모임.
- 서일불교학사 (http://cafe.daum.net/suillove)-8월 30일 개설. 서일대 불교학과의 동아리방.
- 상구보리 (http://cafe.daum.net/sanggubori)-9월 4일 개설. 보리심의 명예회원들의 친목모임.
- 바르미 (http://cafe.daum.net/barumee)-9월 1일 개설. 참선 및 생활불교의 실천적 장으로서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특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나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서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이 향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음식물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세포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기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 체현 사례
- 생리통·기미 33세전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통증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가짜기 이식, 재식되는 것은 즉시 전의뢰하십시오